

## 서생원이 보내준 선물

간 카필라리아증의  
국내 최초 증례



이 순 형

웬일인지 요즘은 뜸해졌지만, 우리에게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가져다 주는 운동으로 「쥐잡기」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때가 있었다. 가가호호에 쥐약을 배부하고 어느 날 어느 시를 정해 일제히 쥐약을 넣은 먹이를 놓아 한꺼번에 쥐를 잡도록 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모든 가구가 다 같이 참여하지 않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쥐약을 놓지 않으면 그 운동의 효과가 턱없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쥐약을 놓지 않은 집의 쥐가 쥐약을 놓은 집으로 옮겨와 다시 살림을 차리고 새끼를 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쥐와의 싸움, 쥐와의 숨바꼭질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쥐도 하늘이 낸 생명체이므로 무차별 말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심(佛心)이 지극한 군자도 있을지 모르나, 피곤한 몸을 구들장 위에 누이고 막 잠이 들려는 찰나에 천정 위에서 쥐들이 올림픽 경기를 벌린단든지, 쌀을 금쪽같이 여기는 농부나 쌀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안식과 실질소득을 축내는 쥐란 놈은 고와 보일리 만무한 것이다.

「쥐잡기운동」의 주요 취지는 식량을 보호한다는데 있을 것이나,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보면 쥐가 해야될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전파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흑사병(黑死病: 페스트)은 그 좋은 예라 하겠지만 이렇듯 잘 알려진 병 말고도 많은 기생충이 쥐로 인하여 사람에게 옮겨오는 것이다.

쥐가 옮기는 기생충 가운데 간(肝)카필라리아증이란 것이 있다. 이 기생충병은 본래 쥐의 병으로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쥐의 90% 이상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쥐가 옮기는 기생충 가운데 간(肝) 카필라리아증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쥐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충란을 섭취했을 경우, 쥐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간경변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카필라리아·헤파티카(肝毛線虫)라는 기생충이 쥐의 간에 기생하면서 많은 충란을 배출하는데 이 충란들은 몸 밖으로 배출할 길이 없어 간에 박혀 육아종을 만들고 마침내 간경변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쥐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충란을 섭취했을 경우 쥐에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간경변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간카필라리아증의 감염원이 되는 충란이 우리 생활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 기생충을 갖고 있는 쥐를 고양이 같은 천적이 잡아먹었을 때 쥐의 간은 고양이 창자에서 다 소화되고 간 속에 박혀 있던 충란이 고양이 대변을 통하여 자연계에 살포되게 마련이다. 때로는 쥐가 쥐를 잡아먹는 상식성(相喰性)에 의해 쥐똥 속에 이 충란이 배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쥐잡기 운동」을 통해서 잡은 쥐를 태워버리거나 적절하게 매몰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통 속에 던져지거나 마구 방치된 쥐의 시체에서 충란이 유리되게 마련이다. 하물며 쥐의 시체를 차도에 버렸을 경우 차바퀴에 눌러 쥐포(?)가 된 시체 속의 충란이 그 장소 뿐 아니라 차바퀴에 묻어 멀리까지 퍼져 나갈 수도 있다. 우리는 특히 쌀가게 앞에서 포가 되어버린 쥐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광경을 익히 보아 왔었다.

이와 같이 많은 쥐가 이 병에 걸려 있고 죽은 쥐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또 그런 환경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있는 상황에서 이 간카필라리아증 환자는 많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기생했다는 보고가 한 예도 없었음은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기생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고, 둘째 이 기생충이 간 속에 박혀 있으므로 진단을 붙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상 세계적으로도 20여에 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그것도 환자의 부검을 통해서 진단된 것이

근래에 이르러 간생검으로 간카필라리아 감염 진단이 되기 시작하여 그 증례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증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환자가 발견되지 않고 의학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선 증례가 보고되는 것이 역설적이다.

태반이다.

근래에 이르러 간생검으로도 진단이 되기 시작하여 그 증례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막상 증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환자가 발견되지 않고 의학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선 증례가 보고되는 것이 역설적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부검, 간생검 등 진단기술이 발달되어야 이 병의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생충의 인체기생 예를 찾아내었기에 우리 의학도 선진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환자는 14개월 된 여아인데 40도 가량의 고열과 배가 불러오는 증세로 서울대병원을 찾아 왔다. 여러가지 검사 결과 간이 커져 있고 호산구가 증가되어 있어 기생충으로 인한 간질환임을 짐작케 하였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간생검을 한 바, 천재일우라 할까 그 작은 조직표본에서 간카필라리아의 충체와 충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치료를 받은지 약 2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여아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이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고양이와 개가 주위에 많았으며 이들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증례이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괴로움을 받았거나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단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했을 경우 부검을 해야하는 이유도 이 기생충병의 성격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발견은, 사람의 기생충이 없어져 간다고 방심하는 사이, 동물에서 옮겨오는 인수공통 기생충이 늘어나 우리에게 기생충에 관한 경종을 다시 울려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72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교수〉